

무안군, '통합 항공기지' 구축 행보

김산 무안군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 고정익 항공대 방문

“우리나라 전역 해양안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무안군은 지난 28일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 소속 무안 고정익 항공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군 관계자들은 항

공대 격납고와 비행기를 살펴보고 해양경찰 항공임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경 통합 항공기지에 대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무안군과 서해청은 지난 2019년 5월 항공특화산업단지 내 통합 항공기지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이후 상호 협의를 해왔다.

특히 서해청은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지정계획 반영 및 전남도 실시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국회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해양경찰 항공대는 무안, 김포, 포항 등 전국에 총 10개소가 있으며, 무안항공대는 지난 2019년 2월 여수, 양양, 제주항공대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무안공항공은 서해청 관할 해역 뿐만 아니라 독도, 이어도 등 우리나라 전 해역의 상황대응이 가능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

다. 따라서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내 통합 항공기지를 구축하여 비행 시뮬레이터 센터, 고정익 정비창, 회전식 격납고를 추가 신설 준비 중에 있다.

통합 항공기지가 신설되면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는 국내외 우수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이 입주하게 되면서 항공 정비(MRO) 분야의 특화된 산업단지이자 국내 전 해상의 통합 항공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과 통합 항공기지 구축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해양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항공 산업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무안에서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 생(生)비빔밥 식재료센터 내일 개장

함평 생(生)비빔밥 식재료센터가 오는 7월 31일 공식 개장한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 생(生)비빔밥 식재료센터가 이달 31일부터 ‘함평군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대표 임재문)’을 통해 위탁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4월 모집 공모와 6월 센터 운영위원회를 거쳐 ‘함평군 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이 새로운 위탁 운영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계약기간은 2022년 6월까지 2년이다.

앞서 군은 2018년 말 총사업비 6억여 원을 들여 읍내에 위치한 비빔밥테마거리에 99㎡(약 30평) 규모의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를 건립했다.

지역 대표 음식인 한우 생고기 비빔밥을 육성하고 관련 식재료를 신선하고 효율적으로 제

공하기 위해 정육장비와 냉동·냉장실 등 15종의 각종 설비도 갖췄다.

군은 식재료센터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 유통과 양파, 마늘, 호박 등을 판매하고 관내 생(生)비빔밥 업체에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에 함평 생비빔밥 식재료센터가 개장하면서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들이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재 검토 중인 농가별 계약 재배 확대도 지역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한 방식 등으로 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개장식은 열지 않기로 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정부합동평가 대비 지표담당자 교육

영암군이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담당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28일 영암군청 왕인실에서 지표담당 공직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2020년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평가제도의 이해와 실적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 정성지표 우수사례 작성방법 등 사례를 중심으로 지표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이번 교육 이후에도 월별 보고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관리와 함께 부진지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부서간 협업을 장려하여 행정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부의 주요시책과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등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여 국정 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해양수산행정 대응 위해 ‘바다드림팀’ 간담회

해양관광·해상풍력 등 관련 16개 분야 전문가 구성 연구과제 수행

영광군은 변화하는 해양수산행정 적기 대응을 위해 해양관광, 해상풍력 등 16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바다드림팀’ 분과위 간담회를 별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8일 밝혔다.

영광군은 해양수산행정의 미래 비전 제시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다드림팀’을 해양수산 관련 전직 관료 출신 등 자문 그룹과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부 정책을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바다드림팀’은 전문가들 간 상호 교류·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정부 정책에 긴밀히 대응하며 5명 이내로 구성된 분과위에서 칠산바



다 관광유람선, 불갑천 어도(고기 길) 설치, 영광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방안 등 16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정책자문과 소통 강화로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역량을 키워 우리 군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광군수, 영광 제2정수장·연암정수장 현장점검

최근 인천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정집 수도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지난 27일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영광제2정수장 및 연암정수장을 방문해 수

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등을 점검하고, 직접 정수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확인에 나섰다.

앞서, 지난 25일 영광군상수도사업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여과지 여층 유층서식 여부

확인 ▲환기구 방충망 설치 ▲시설물 철결상태 등 정수장 위생상태 긴급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시설물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1인당 20매씩 순차적 지급

목포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호흡기 질환 예방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KF94) 39만 9천여매를 보급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

마스크는 1인당 20매씩 지급되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부한다. 특히 고령자, 중증장애 등 거동 불편 세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외

부활동에 제약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사회복지공무원이 안부살피기를 병행하여 각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유입이 매년 심해지고 있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을 당부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많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